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시즌 3) ·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공고 원문을 먼저 읽히고, 자격이 안 되면 '쓰지 마라'로 끝내게 만든 AI 서류 작업 절차

— 서류 27 건에 적용하고 3 건은 제출 중단으로 끝낸 기록 —

제안자 임진성

1. 한 줄 요약

생성형 AI 에게 서류를 '더 잘 쓰게' 하는 대신, **쓰기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로 자격을 검증하게 하고 검증에 실패하면 작성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분량 제한은 눈대중 대신 Word 로 쪽수를 세어 맞춘다. 결과물 품질이 아니라 **중단 조건**을 설계한 것이 이 사례의 핵심이다.

2. 문제 인식 — AI 로 원고만 빨리 뽑았을 때 실제로 생긴 일

구분	증상	원인
①	자격 미달 서류를 끝까지 다 쓰고 나서 알았다	중개·요약 사이트에는 '전국 대학생'만 적혀 있었고, 주최기관 첨부 PDF 에 '해당 학과 재학생' '지도교수 공동 참여 필수' 조항이 숨어 있었다
②	'A4 2 쪽 이내'를 눈대중으로 넘겼다	글자 수가 아니라 쪽수 기준이면 표·여백 때문에 체감과 실측이 어긋난다
③	확인되지 않은 통계·법령 조문이 그럴듯하게 들어갔다	생성 결과를 검증 단계 없이 그대로 쓰면 허위 기재가 된다

3. 활용 절차 — 공용 지침 한 장을 매 작업마다 먼저 읽힌다

공모전이 바뀌어도 지침 문서는 그대로 재사용한다. AI 는 이 순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단계	하는 일	산출물 / 판정
1	**공고 원문 확보** — 주최기관 공식 페이지와 첨부파일 원본을 받는다. PDF 는 PyMuPDF, HWP/HWPX 는 압축 해제·바이너리 텍스트 추출로 본문을 뽑고, 포스터 이미지뿐이면 이미지를 직접	원문 파일 + 추출 텍스트. **중개 사이트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는다**

	판독한다	
2	**사실표 작성** — 원고보다 먼저. 주최·주관, 접수 마감(날짜만인지 '16:00'까지 적혔는지 구분), 참가자격 원문 인용, 개인/팀 여부, 제출물 목록과 형식·분량, 접수처, 심사 배점표, 내가 못 하는 항목	사실표 1 장. 인용이 비어 있으면 '확인 못 함'으로 남겨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드러낸다**
3	**자격 판정** — 사실표에 인용된 자격·결격 조항으로만 판단한다	미달이면 **원고를 쓰지 않고 중단(STOP)**, 근거 문장을 인용해 보고
4	**원고 작성** — 심사 배점표를 소제목으로 바꿔 배점 항목마다 대응 단락을 둔다. 확인 못 한 수치는 질적 서술로 대체하고, 법령은 조문 번호까지 맞춘다	배점 대응표가 채워진 초안
5	**분량 기계 검증** — python-docx 로 문서를 만들고 Word COM `ComputeStatistics(2)`로 쪽수를 숫자로 출력한 뒤 PDF 로 변환	쪽수 측정값. 초과 시 서식이 아니라 **내용을 줄여** 재측정
6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자격 / 제출물 1:1 대응 / 분량 측정 통과 / 파일명·메일 제목 규칙 / 서명·동의 누락 / 마감 여유	전 항목 통과 시에만 제출 단계로 진행
7	**제출 이력 원장** — 보낸 곳·일시·첨부·접수번호와 **그 건에 쓴 핵심 아이디어 한 줄**을 누적	다음 작업은 원장을 먼저 읽는다 → 아이디어 중복 출품·동일 건 재발송 차단

4. 적용 결과 (본인 작업 기록 실측)

항목	값	비고
완성·접수한 공모전	**27 건**	부문별 복수 접수를 따로 세면 접수 30 건. 이메일 접수와 웹폼·구글폼 접수가 섞여 있다
접수 확인 방식	접수번호·완료 화면 저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과 접수번호를 원장에 기록
제출하지 않고 중단	**3 건**	중단이 이 절차의 성과다. 아래 5 절
분량 초과 반송	0 건	'2 쪽 이내'가 적힌 건은 전부 측정값으로 확인한 뒤 발송
규칙으로 되먹인 실패	3 종	허용 확장자 표시가 거짓인 폼 / 전송 버튼 지연으로 인한 중복 발송 / 서약서 라디오 좌표 밀림

5. 중단한 3 건 — 원고를 쓰지 않고 끝낸 근거

분야	걸린 조항 (주최측 공고 원문)	조치
소방	"소방 관련학과 재학생", "지도교수 공동 참여 필수" — 요약 페이지에는 없던 조항	자격 미달. 작성 중단
문학	공고 PDF 3 쪽 "AI 제작 작품은 심사 제외·수상 취소" + 순수 창작 서약 필수	AI 를 쓰는 작업 방식과 충돌. 응모 포기
보건 정책	참가동의서 서식의 "표절(AI 기반 제작 포함)" 문구	원고 완성 상태에서 **제출 보류**, 판단 보고

→ 이 3 건은 예전 방식이면 원고를 다 쓴 뒤에, 최악의 경우 제출한 뒤에 알게 됐을 문제다.

6. 차별점 — 왜 '프롬프트 개선'이 아니라 '중단 조건 설계'인가

· **출력물이 아니라 중단 조건을 먼저 정의했다.** 자격 조항이 원문 인용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원고 작성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 **근거의 등급을 나눴다.** 중개 사이트 요약은 '단서', 주최기관 공고문과 첨부파일은 '근거'. 판정은 근거로만 한다.

· **사실표를 원고보다 먼저 쓰게 했다.** 사실표는 제출용 문서가 아니라 검증 장치다.

· **사람이 판단하는 지점을 명시했다.** 회원가입·본인인증이 필요한 건, AI 활용 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건은 AI 가 임의로 진행하지 않고 멈춰 보고한다.

· **기계가 셀 것과 사람이 볼 것을 섞지 않는다.** 쪽수·글자수·첨부 용량·확장자는 스크립트가 센다. 사실관계와 제출 여부 결정은 사람이 한다.

· **겪은 실패를 지침에 되먹인다.** '함정 기록' 항목에 누적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7. 재현 방법 — 설치할 것 없이 지침 7 줄

지원서·사업계획서·보고서·입찰 서류처럼 **요건이 적힌 원문이 따로 있는 문서**라면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 작업 지침 한 장을 만들어 AI 에게 매번 먼저 읽히는 것이 전부다.

1) 요건은 발주·주최기관 원문과 첨부파일에서만 확인한다. 중개·요약 사이트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2) 원고 전에 사실표를 쓴다. 자격·마감(시각 포함)·제출물·분량·접수처·배점을 원문 인용과 함께 적는다.

3) 자격 미달이거나 금지 조항과 충돌하면 원고를 쓰지 않고 멈춘다.

4) 분량·서식 제한은 눈대중하지 않고 측정한다(쪽수 세기, 글자 수 세기, 첨부 용량 확인).

5) 확인하지 못한 수치·법령·사건은 쓰지 않고 질적 서술로 바꾼다.

6) AI 활용 고지란이 있으면 사용한 도구와 활용 범위를 그대로 적는다.

7) 제출 이력을 한 파일에 누적하고, 새 작업은 그 파일을 먼저 읽고 시작한다.

규모를 줄여도 효과가 남는다. 서류 한 건만 준비하는 사람도 1)~4)만 지키면 '자격이 안 되는 서류를 끝까지 쓰는 일'과 '분량 초과로 반송되는 일'을 없앨 수 있다.

8. 윤리·책임성 — 따라 할 때 함께 지킬 것

· 공고문·서식 파일을 공개 자료로 돌려쓰지 않는다. 인용은 판정 근거에 필요한 문장까지만 하고, 출처(기관명·문서명·쪽수)를 함께 적는다.

· 신청서에 들어가는 개인정보(이름·연락처·주소·서명 이미지)는 해당 서류 작성과 접수 양식 입력 외의 용도로 쓰지 않고, 보관 위치를 한 곳으로 정한다.

· AI 가 쓴 문장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수치·법령 조문·기관명은 사람이 원문과 맞춰 본 뒤 남긴다. 이 보고서의 숫자도 모두 본인 작업 기록에서 센 값이다.

· AI 제작을 금지하거나 순수 창작을 서약하게 하는 공모전에는 응모하지 않는다. 고지란이 있으면 활용 사실과 범위를 그대로 적는다.

※ 본 사례의 작성 과정 자체도 생성형 AI 를 활용했다. 사용 도구: Claude(Anthropic). 활용 범위: 공고·첨부파일 조사와 정리, 아이디어 구조화, 초안 작성 및 문장 교정. 착안점 선정, 수치 확인, 제출 여부 결정은 본인이 수행했다.